



대전주보

<2024년 사목교서 표어> 성사 은총 안에서 세상의 빛이 되는 교회 공동체

발행 김종수(제2793호) 편집 천주교대전교구 홍보국

E-mail tjubo@hanmail.net 홈페이지 http://www.djcatholic.or.kr



마산공소(한산성당) / 그림 안종찬(바오로), 2024년

연중 제12주일 | 2024년 6월 23일(나해)

제1독서 욕 38,18-11

제2독서 2코린 5,14-17

화답송

- ◎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분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배를 타고 항해하던 이들, 큰 물에서 장사하던 이들. 그들은 주님의 업적을 보았네. 깊은 바다에서 그분의 기적을 보았네. ◎
- 그분 말씀에 사나운 바람 일자, 커다란 파도가 높이 솟았네. 그들이 하늘로 솟았다가 바다 깊이 떨어지니, 그들 마음이 괴로움에 녹아내렸네. ◎
- 곤경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자, 역경에서 그들을 빼내 주셨네. 광풍을 순풍으로 가라앉히시니, 거친 파도 잔잔해졌네. ◎
- 바다가 잠잠해져 기뻐하는 그들을, 원하는 항구로 그분은 이끄셨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 자애를, 사람들에게 베푸신 그 기적을. ◎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우리 가운데에 큰 예언자가 나타나셨네. 하느님이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네. ◎

복음 마르 4,35-41

영성체송

주님, 눈이란 눈이 모두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은 제때에 먹을 것을 주시나이다.

대전 중등부 예비신학생 모임
6월 30일(주일) 오전 10시 30분
탄방동성당



예비신학생들에게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섭리를 바라보는 시선



김성태 요셉
내포교회사연구소 소장

내포, 너른 들에서 나고 자란 선생님은 천주를 두려워한다고 했다. 그의 두려움은 광활한 들판의 변화무쌍에도 불구하고, 정연한 질서로 조화를 이뤄가는 대자연의 신비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그게 천주의 섭리라는 걸 선조들은 알고 있었다.

그 시절엔 혹독한 가뭄이 흔하게도 찾아왔다. 다 자란 모를 내지 못한 농부의 가슴은 말라서 갈라진 땅만큼이나 깊이 패고 아렸을 것이다. 교우들은 그때마다 비를 청하는 9일 기도로 천주께 의지했다. 제아무리 메마른 하늘도 기도 끝에 다가온 ‘베드로·바오로 축일’에는 영락없이 비를 주셨다고 했다. 세상을 대하는 선조들의 태도와 그를 기억하는 선생님의 표정에서는 섭리에 대한 경이로움과 신뢰가 진하게 배어 있었다. 장마철이라 비가 오는 게 아니라 내리는 비에 천주의 뜻이 담겼노라고 그들은 굳게 믿고 있었다.

그 들녘의 봄은 바람이 항상 모질게 일었다. 바람이 거세게 몰아칠수록 순교자의 자취가 더욱 생생하게 아른거리는 데는 이유가 있다. 병인년 이른 봄, 착한 목자 다블뤼를 실은 배는 거센 역풍에 밀려 내포를 떠나가지 못했다.

바람이 막아 세운 선교사의 마지막 발자취는 천주께서 ‘가라’ 하신 세상의 끝이 아니었을까. 그는 여기서 순교자가 되고, 성인이 되었다.

슬픈 봄바람을 다시 생각한 것은 한 교우의 혼잣말 때문이었다. ‘아, 바람이 불어야 할 텐디.’ ‘바람은 왜 불어야 한대요?’ ‘그래야 논을 갈쥬.’ 이른 봄엔 바람이 모질게 불어야 한단다. 바람이 불어야 언 땅이 녹고, 녹은 땅이 굳고, 굳은 땅은 쟁기로 깊이 갈아 씨를 뿌릴 수 있다. 어느 바람은 곡식을 주고, 어느 날의 바람은 나그네의 길을 막고, 그 바람은 다시 순교자를 내었다. 바람이 슬픈 게 아니라 바람에 깃든 천주의 뜻이 새로운 소명을 그에게 부여한 것이다. 바람을 내신 천주께서는 그 의미까지도 섭리하시는 까닭이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마르 4,41)

거센 바람과 성난 파도, 큰 물과 메마른 대지까지 천주하느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복음의 진리를 선조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나고 살고 죽고, 하루하루 일어나는 일들이 중요한 건 일의 크고 작음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오늘 다시 주어진 일상에 진지하고 성실하자고 다짐하는 것은 선조들처럼 오직 천주만을 두려워하고 싶어서다.



바울이
(1075)

유판식 토마스



선교하지 못하는 선교사

해외 선교지 몽골, 그곳은

‘선교하지 못하는 선교사’ 뭔가 이상한 말입니다. 몽골은 직접 선교가 금지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길거리에서 가톨릭교회를 홍보하고 초대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몽골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든지 자신이 믿고 싶은 종교를 스스로 선택해서 찾아가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자기가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로마 10,14)라고 합니다.

선교가 금지된 나라에서 어떻게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선교가 금지되어 있는 나라, 몽골에서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벌써 10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어떻게 해야 선교를 잘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당 앞마당에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매일 저녁 함께 식사하면서 친밀감을 쌓아가다 보니 어느덧 20여 명으로 신자들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아이들이 언젠가 성당 안에 들어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그리게 됩니다. 본당 주변을 다니며 사람들을 만날 때도 혹시 언젠가 우리 본당 신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생깁니다.

몽골에서 외국인으로 지내다 보면, 한국사람이 몽골까지 와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며 물어봅니다. 그때마다 제 신앙생활을 설명할 기회가 되는 것도 반갑습니다. 가톨릭교회의 신부라고



이야기하면, 아내도 자식도 없이 불쌍하게 혼자 산다고 많은 사람이 안타까워합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오히려 제가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자신 있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때론 크신 하느님의 사랑 앞에서 제 자신이 게으르고 쓸모없는 사람처럼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선교사로 제자리를 지키고만 있어도 하느님께서 하시느 놀라운 일을 보게 됩니다.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의 자녀들이 하나둘 태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눈에는 말도 잘 못하는 쓸모없는 선교사처럼 보일지라도, 하느님께서서는 예수님을 밝혀주는 작은 촛불처럼 쓰시려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작은 불빛을 밝혀봅니다.

● 노상민 토마스 신부 몽골 선교

[피조물 보호를 위한 50가지 손쉬운 방법]

18. 외출할 때 버스, 지하철로 갈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기

<공공교통네트워크>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승용차를 한 번 이용할 때마다 1만4천원 정도의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고 합니다. 휘발유나 자동차에 부과되는 세금은 4천원 정도에 불과해 나머지 비용은 오롯이 사회가 부담하게 합니다. 반면 버스는 이 비용을 이용자로 나누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거죠. 해외의 도시들의 정기관 제도처럼 우리나라도 5월 1일부터 K-패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공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는 공공교통 지원보다는 자가용 이용자들을 위한 혜택에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버스노선 확대보다 주차장을 확대하는 정책을 펴고 있구요. 탄소배출을 수치화했을 때 가장 눈에 띄게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교통과 수송이라고 합니다. 우리 지역의 공공교통을 좀더 적극적으로 이용해보고 모니터링해서 의견을 내주세요. 세상이 변화할 수 있도록 충분히 힘을 보탬 수 있습니다.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 | 생태환경위원회



3. 방송 미사에 대해서

성전에서 봉헌하는 미사와 방송 미사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2020년 2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으로 우리 모두는 두려움에 떨어야만 했고, 우리의 당연했던 일상도 멈춰버렸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천주교 대전교구에서는 2020년 2월 20일, 공문을 통해 신자들에게 처음으로 교구 대책을 안내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상황은 더 악화되어, 정부의 위기대응 지침이 ‘심각’ 단계로 격상되었고, 주교회의에서는 ‘**잠정적 미사 중단**’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였습니다. 동시에 교구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교구 후속 조치**”라는 이름으로 구체적으로 준수해야 할 점을 안내했습니다. 특히, 교구장 공문을 통해 처음으로 “**방송 미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지침이 전달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당시는 매우 어렵고 부득이한 환경이었습니다.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을 수 없었고,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그래서인지 성당을 찾아 미사를 봉헌하는 이들은 눈에 띄게 제한되었고, 대신 방송 미사에 참여하는 신자들이 늘었습니다. 물론 정부의 지침을 거슬러 무조건 성전에 와서 미사를 봉헌하라고 강요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성전을 찾는 것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편리한 방법인 방송 미사로 미사 참례를 대체하는 이들이 늘었다는 점은 교회가 마주한 지극히 현실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2020년 성모 승천 대축일에 교황청에서 “**기쁘게 성찬례로 돌아갑시다.**”라는 서한을 발표합니다. 일부의 내용을 살펴봅시다.

“커뮤니케이션의 수단들이 **병약한 이들과 교회에 갈 수 없는 이들을 위하여 소중한 역할**을 하고, 공동체

거행이 불가능한 이 시점에서 미사를 방송하는 훌륭한 역할을 해 왔지만, **어떠한 방송도 [신자들의] 직접적인 미사 참례와 비교할 수 없고 대체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방송은, 가상의 방식이 아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서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서 머무른다.’(요한 6,56)라고 참으로 말씀하신 강생하신 하느님과의 인격적이고 친밀한 만남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부득이한 상황에 놓인 이들, 병약한 이들, 교회에 갈 수 없는 이들을 위해 방송 미사의 역할은 분명하지만, 직접적으로 참여하여 봉헌하는 미사와 비교할 수도 없고, 대체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방송 미사는 분명 신앙적인 부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수단입니다. 그러나 성사로써 이루어지는 미사 봉헌을 직접적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성체를 받아 모시는 미사 참례와, 다른 이들이 성체를 모시는 것을 시청하는 미사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곧, 방관자적인 입장에서 미사를 시청하는 것과 함께 모여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미사를 봉헌하는 차이를 깨달아야 합니다. 성체를 직접 모시지 못하는 점에서 방송 미사가 가진 한계는 분명합니다. 2020년 교황청에서 발표한 서한의 제목을 다시금 기억하며 우리 “**다시 기쁘게 성찬례로 돌아갑시다.**”

궁금한 질문은 tjubo@djca.kr 메일 발송해 주세요!

● 윤진우 세례자요한 신부 사목국 부국장

대전성모병원 로봇수술센터1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THE CATHOLIC UNIV. OF KOREA DAEJEON ST. MARY'S HOSPITAL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이 최신 사양의 '4세대 다빈치 xi 로봇수술기'를 도입, 본격 가동 중입니다. 다빈치 xi 로봇수술은 의사의 손목관절과 손가락 움직임을 최대한 동일하게 기구에 구현해 의사의 손 움직임을 인체 내 작은 기구에 전달해주며, 손동작 자동 변환 시스템으로 수술기구 조작에 흔들림이 없어 손 떨림 없는 정밀하고 정확한 수술이 가능합니다.

수술 부위를 최소한으로 절개해 출혈 및 통증이 적고 흉터와 부작용, 합병증 발생이 감소하므로, 회복이 빠르고 최선의 치료 결과를 제공해 환자들이 수술 후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 기존 시스템의 기술적 한계로 접근하기 어려웠던 림프절제술이 필요한 고난이 암수술은 물론 다양하고 복잡한 최소침습 수술에 확대 적용되어 기존 모델에 비해 기능과 편의성 부분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3D 영상정보의 화질도 실제와 흡사한 수준으로 개선돼 기존의 복강경 수술에 비해 20배 이상 확대된 시야에서 집도의가 정확하게 판단, 더욱 정확하고 용이한 수술이 가능해졌습니다.



교구알림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한반도 평화기원 미사'

- 때 : 6.25(화) 19:00
- 곳 : 주교좌 대흥동성당
- 주례 : 총대리 한정현 스테파노 주교
- 문의 : 대전교구 민족화해위원회
(042)636-1331

생태영성 피정

- 때 : 6.28(금) 15:00~30(주일) 16:00
- 곳 : 살레시오회 나자렛 집(대전 동구)
- 참가비 : 1인 12만원
- 신청마감 : 6.24(월), 15명 선착순
- 신청문의 : 010-3452-9702 생태환경위원회



전담사목

또 하나의 소통 성, 사랑 그리고 생명

- 때 : 7.20(토) 13:00~17:00
- 곳 : 하품센터 (천안시 서북구 월봉5길 23)
- 대상 : 초등학교 부도(15명 내외)
- 참가비 : 1만원 / 1인
- 주제 : 있는 그대로의 '나'
- 신청 : <http://hapum7179.godomall.com/>
- 문의 : (041)572-7179, hapum7179@gmail.com

청년 성시간

- 때·곳 : 6.26(수) 19:30, 하품센터
- 대상 : 청년 누구나
- 문의 : (041)572-7179, hapum7179@gmail.com

제49차 젊은이 성령묵상회

- 때·곳 : 8.24(토)~25(주일), 새얼센터
- 대상 : 고1(2008년생)~고3(2005년생)
만20세 이상 교구 미혼 젊은이
- 모집 : 8.10(토)까지
- 신청방법 : 카톡폴친[아자리아],
인스타그램[AZARIAH_2021]
- 참가비 : 10만원
- 선착순 : 고교생 10명, 젊은이 40명
- 입금 : 농협 301-0274-0526-51
- 천주교 대전교구 성령새신봉사회
- 문의 : (042)824-6773



교구 내 기관 및 시설

미사 기쁨의 피정

- 신자로서 보다 능동적인 미사봉헌을 위한
피정 프로그램
- 때 : 8.24(토) 14:30~25(주일) 16:00
- 피정비 : 1인 9만원 (2인 1실 기준)
- 곳 : 정하상교육회관
- 문의 : 010-8848-5690



교회 운동 및 인준단체

대전교구 가톨릭 음악선교단 '더워드' 단원모집

- 파트 : 악기, 보컬 (남, 여) / 오디션 있음
- 자격 : 20~40세 천주교 신자
- 곳 : 대전가톨릭문화회관
- 문의 : 010-6744-7482 김현주 시몬

대전교구 가톨릭 소년소녀합창단 신입단원 모집

- 대상 : 초3~중3
- 대전반 : 매주 수 19:00
대전가톨릭문화회관 4층
- 세종반 : 매주 목 19:00,
세종성요한바오로2세성당 1층
- 문의 : 010-7921-3610

대전역,천안역 노숙형제돌봄 후원기부 요청

- 품목 : 김치컵라면박스, 즉석밥박스,
여행용김치볶음박스, 양말세트, 세면타올
- 접수처 : 본당 사무실 또는 대전교구빈첸시오회
- 기간 : 11.30(토)까지
- 문의 : 010-7543-5114, (042)626-2031
대전교구 빈첸시오회 정기호 요셉

파티마 세계사도직 (썸)첫토요일 신심미사

- 때 : 7.6(토) 시작기도 10:00, 미사 11:00
- 곳 : 대흥동 가톨릭문화회관
- 문의 : 010-4939-8688

대전교구 전례꽃꽂이연구회 6월 월례회

- 때 : 6.24(월) 14:00~16:00
- 곳 : 대전교구청 명례방
- 내용 : 전례특강미사
- 작품발표 : 성모 승천 대축일, 꽃다발 만들기
- 문의 : 010-4171-9145

천주교 대전교구 합창단 단원모집

- 연습 : 매주 월 19:30, 원신흥동성당
- 문의 : 010-9656-2295 단장 서옥경 가타리나
- 담당사제 : 전원석 베드로

대전가톨릭성서모임 제101차 사도행전 연수

- 대상 : 사도행전 그룹공부 이수한 사람
- 때 : 6.29(토)~30(주일) / 09:30~16:00
- 곳 : 가톨릭문화회관 / 수강료 : 5만원
- 문의 : 010-4228-0470

2024년 하계 꾸르실로 참가자 모집

- 여성 : 제180차 7.17(수)~20(토)
제181차 7.24(수)~27(토)
- 남성 : 제180차 8.1(목)~4(주일)
- 청년 : 제15차 8.8(목)~11(주일)
- 모집 : 남성,여성 각각 60명(선착순)
- 참가비 : 23만원(3박 4일)
- 자격 : 영세 후 만3년 이상 신자로 본당 주임
신부와 율프레야 간사의 추천을 받은 자
- 문의 : 율프레야 간사
- 곳 : 정하상 교육회관

대전주교 「교구 신자들의 신앙 나눔터」는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지면입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수필 형식으로, 원고지 6장 또는 A4(10pt) 용지 25줄 이내로
원고 작성 후 우편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채택되신 분께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채택된 원고는 각각 9월 29일, 12월 29일 주보

「교구 신자들의 신앙 나눔터」 지면에 실리게 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5로 12 대전교구청 홍보국

이메일 : tjubo@djca.kr / 문의 : (044)270-3041 홍보국

교구 성령새신봉사회 프로그램 안내

장소 : 새얼센터 / 문의 : (042)824-6771

프로그램	때	내용	차량운행 / 비고
은혜의 밤	6.27(목) 19:00	강사 : 박창환 신부(청주교구 성모 꽃마을)	지족역2번출구 18:50 대기출발
기도의 밤	7.4(목) 19:00	강사 : 광영숙(성령새신봉사회 봉사자)	
치유의 밤	7.11(목) 19:00	강사 : 권미나 수녀(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	
천안아산지구 말씀피정	7.5(금) 13:30	강사 : 김현우 신부(인천교구 사회사목국 부국장)	곳 : 천안청당동성당 문의 : 010-9697-6772

보나투어 성지순례

8/16 말레이시아 페낭&말라카 순례 6일 225만원
9/23, 10/21 마카오 도보순례 4일 139만원
12/19 남인도 성지순례 13일 595만원
T. (02)732-4578 보나투어를 검색해 보세요

척추·관절 허리사랑병원

대표원장 : 김관태(바오로)
척추·관절 전문의 10인 진료
T. (042)528-7588 롯데백화점 옆

모두의 안과

원장 : 이영훈, 진선영, 백승국(라파엘)
영등포 김안과, 건양대병원교수출신
망막, 녹내장, 백내장 중점진료
을지대병원 근처 T. (042)721-2211

연세내과

(365일 24시간 진료)

내과전문의 박준용(베드로)

둔산 타임월드 정문 앞 T. (042)485-8000

대전성모안과

원장 : 박인철(미카엘) Since 1998
(전)우리성모안과 원장 (전)눈빛안과 원장
롯데백화점 맞은편 T. (042)533-0078

이안과병원

의료법인 청운의료재단(이안과병원)
병원장 : 이여덕(바오로)
안과전문의 : 6인진료
T. (042)220-5500 대흥동 성당 맞은편



교구 외 기관 및 시설

새로운 복음화학교 피정(ICPE)

- 때 : 8.13(화)~18(주일)
- 곳 : 수원교구 영성 교육원
- 대상 : 모든 신자(자녀동반가능)
- 문의 : 010-5531-1008

제21회 가톨릭 대안 좋은학교 연수

- 때 : 7.20(토)~21(주일)(1박2일)
- 곳 : 양업고등학교 (043)260-5076
- 대상 : '좋은(Quality) 교육'에 관심있는 모든 분
- 접수 : 7.9(화) 오전 10시부터 선착순 마감
- 회비 : 8만원 (식비 포함)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52기내면아이치유워크샵

- 상처받은 내면아이를 돌보는 마음여행
- 대상 : 관계소통 회복 경험, 내면의 성장을 원하시는 분
- 때 : 7.16(금)~18(주일) 2박3일
(시작하는 날 10:30~마치는 날 18:00)
- 신청 : 마음정원영성센터
(042)862-9780, 010-5392-6353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임양원

- 국내입양상담 : (02)764-4741~3
- www.holyfca.or.kr



수도회 및 피정

성 도미니코선교수녀회 피정안내

- 하느님, 바람, 나(힐링피정) : 7.5(금)~7(주일)
- 효소단식 : 7.11(목)~14(주일), 8.9(금)~12(월)
- 성경완독 : 7.26(금)~8.3(토), 8.23(금)~31(토)
- 문의 : 010-3340-0201 횡성 도미니코피정의집

우리성서모임 7월 로고스 피정(3회)

- 때 : 1차~7일(주일), 2차~9일(화), 3차~10일(수)
- 시간 : 09:30~16:30, 각 차수 25명
- 피정주제 : 욕기의 탄원, 감사, 찬미의 기도
- 준비물 : 성경, 피정비(각 차수 4만원), 점심 제공
- 신청 : 예수수도회 우리성서모임 010-2985-9020

예수수도회 영성센터(서울) 프로그램

- 엄마와 딸(미혼)피정 : 7.6~7
- 세월의 지혜와 영성피정(65세이상) : 7.15~19
- 곳 : 서울 오류동(1,7호선 온수역 10분거리)
- 문의 : 010-6890-7223

자비의 메르세다리아스 수녀회 성소모임

- 때 :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 대상 : '답자' 나를 찾고자 하는 분들
- 문의 : 010-9304-0295 채 세실리아 수녀

예수수도회 메리워드 심리상담센터

- 심리 상담(청소년, 성인-개인, 부부, 가족 문제)
- 문의 : 010-5784-8585
- 모래놀이 치료(아동, 청소년, 성인)
- 문의 : 010-3488-6765
- 곳 : 예수수도회 교육센터(대전성모여고 내)

비밀독서단(온라인)7월 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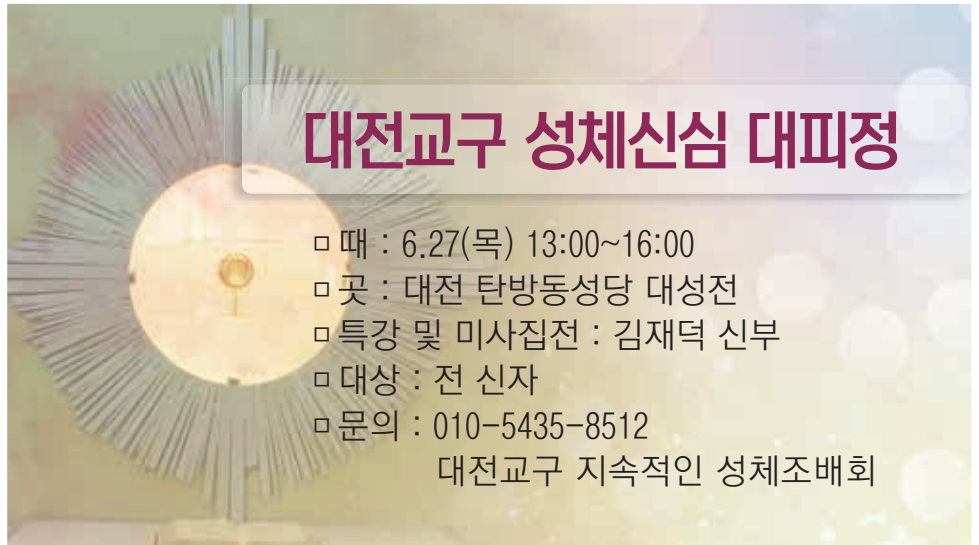
- 키워드 : 우리의 여름
- 기간 : 4주간 7.8(월)~8.3(토)
- 신청비 : 5만원(책 2권, 배송료 포함)

한티 가는길

- 5차 : 9.25(수)~27(금)
- 6차 : 10.10(목)~12(토) 7차 : 11.25(월)~27(수)
- 곳 : 왜관 피정의집
- 참가비 : 25만원, 대구은행 504-10-102896-6
(재)왜관성베네딕도수도원
- 문의 : 010-6791-0071

청주 초정성령회관 치유평정

- 때 : 6.29(토) 14:00~30(주일) 14:00
- 피정 참가비 : 2만원 / 청소년 무료
- 강사 : 김용열 토마스아퀴나스, 김완식 요셉
- 진행 : 고영민 안드레아(음악부)
- 곳 : 초정성령회관
- 문의 : (043)213-9103, 010-5482-6744



대전교구 성체신심 대피정

□ 때 : 6.27(목) 13:00~16:00
 □ 곳 : 대전 탄방동성당 대성전
 □ 특강 및 미사집전 : 김재덕 신부
 □ 대상 : 전 신자
 □ 문의 : 010-5435-8512
 대전교구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산내·성환공원 묘원 봉안(납골)담 분양 안내

• 가격 : 1인실 사용료 2,500,000원(산내)
 3,500,000원(성환)
 • 관리비 : 20년간 500,000원
 • 문의 : (044)270-3030 교구청 관리국
 (041)546-7265 성환묘원 사무실





한끼100원나눔운동
2024년 사랑의 온도현황

38.3°C

총 모금 383,729,692원

[6.1~7 모금액] 7,375,460원
본당 6,020,360원 / 개인·기관·행사 1,355,100원

미카엘 여행사 국내·해외성지순례 8/18 베트남 하노이 5일 8/26 발간·제주고리예 12일 9/2 베트남 다낭 5일 9/23 홍콩·마카오 4일 (대전·청주출발) 제주·한국성지167 모집중 정성훈 미카엘 010-8650-9690	더 웰 피부과 박장규(안토니오) 김형주(방지거) 유성정 T. (042)825-3045 유성온천역 6번 출구	이화병원 이종민(카타리나) 김지연(아네스) 산부인과(수술전문)/유방외과/MRI, 영상진단센터/ 종합건강검진센터/내과/신경과/인공신장실 천안시 서북구 충무로 165 T. (041)579-1400
행복나눔 이사 사무실 이사, 포장 일반 이사 이종수(야고보) 김영숙(실비아) T. 1877-9924, 010-2575-2176	킴벨 피부과병원 (가톨릭피부과) 국내 유일 피부과 2차병원 T. (042)471-7575	구 정신건강의학과 (심리상담, 우울증, 공황장애) 원장 구미량(헬레나) 롯데백화점 건너편 T. (042)532-7009



미켈란젤로 메리시 다 카라바조의 성모 마리아의 죽음



카라바조, 동정녀의 죽음,
1605~1606년, 루브르 박물관, 파리

외경 중의 하나인 신학자 요한의 이야기에 따르면, 어느 날 동정녀 마리아의 마음은 아들을 다시 보고 싶은 형언할 수 없는 열망으로 가득 찼다고 한다. 그날 성모님은 많이 울었다. 그때 빛으로 옷을 입은 천사가 나타나서 그녀에게 다음과 같이 인사했다: “마리아여, 기뻐하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에게 복이 있나이다. 일어나 낙원을 만드신 이가 내게 주신 이 종려나무를 가져다가 사도들에게 주어, 네 앞에서 찬송을 부르게 하라. 사실, 사흘 안에 당신은 몸을 내려놓을 것이다. 보라 내가 모든 사도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들이 너를 영광 중에 있는 곳으로 옮기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미켈란젤로 메리시 다 카라바조(Michelangelo Merisi da Caravaggio, 1571~1610년)는 이탈리아의 화가로서 명암 기법을 사용하여 17세기 회화에 큰 영향을 주었고, 수많은 위대한 화가들에게도 영향을 끼쳤다. 그가 1605~1606년에 그린 ‘동정녀의 죽음(Morte della Virgine)’이라는 작품이 있다. 이 작품은 맨발의 가르멜 수도회의 명령으로 의뢰되어, 로마에 있는 산타 마리아 델라 스칼라 성당(Chiesa di Santa Maria della Scala)을 위해 카라바조가 그렸지만, 그 수도 공동체의 호의를 얻지 못하고 거부당했다.

가르멜회의 전통 안에 성모 신심이 존재했다. 수도 생활 자체를 성모 마리아께 맡기고 그리스도와의 일치의 신비를 생활화하는 데 그 소명을 가졌다. 카라바조는 이 작품에서 성모 마리아의 마지막 모습에 관한 거룩하고

신비한 모습을 생략하고, 오히려 가장 나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표현했기에, 복되신 성모님을 영성의 모범으로 삼는 가르멜 수도회의 관점에서 이 작품은 성인 모독이었다.

부어오른 배, 노출된 발목, 동정녀의 더러운 발은 그녀의 거룩함과 일치하지 않는다. 전설에 따르면, 카라바조는 테베레강에서 익사한 매춘부를 모델로 삼았으므로 뺨이 녹색을 띤다. 또한 카라바조의 전기 작가에 의하면, 카라바조가 사랑했던 고급 매춘부를 성모 마리아의 모델로 삼았다고 한다. 따라서 카라바조는 성모님의 모델로 매춘부를 삼은 것은 확실하다.

카라바조는 이 작품을 통해 우리 모두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의 영원한 모성을 증언하고 싶었고, 그래서 죽을 때까지 임신한 것으로 묘사했다. 성탄과 같은 초라한 환경, 무거운 장례식장, 사도들의 태도와 성모님의 팔 사이의 완벽한 십자가 배열은 카라바조를 포용한 보로메오(Borromeo) 추기경으로부터 결합한 극빈자의 처지들을 암시했다.

그리고 영클어진 머리카락과 맨발을 드러낸 두 발은 성모님의 외롭고 슬픈 죽음을 암시해 주는 동시에, 그녀 또한 우리와 같은 존재이며 같은 상황에 놓인 인간임을 보여준다. 하지만 강렬한 빛이 성모님의 얼굴과 두 손을 비추고 있듯이, 거룩한 은총의 빛줄기는 평범한 우리에게도 똑같이 내린다는 것을 알려준다. 따라서 이 작품을 바라보는 우리가 “주님, 그녀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영원한 빛을 그녀에게 비추소서.”라는 기도가 자연스럽게 떠올려진다면, 성모님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죽음과 구원을 한 번 더 묵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 작품에 대한 가르멜회의 거부, 이 작품으로 인한 로마의 수많은 고위성직자의 분노 그리고 카라바조와 관련된 살인으로 인해 그는 이주하여 망명 생활을 하게 되었다.

권영명 안드레아 신부

내포교회사연구소 부소장 겸 솔미 교구역사관 관장

본당 성모의 밤



보령지구 연합 성모의 밤



배방본당



반석동본당



전민동본당



홍산본당



신탄진본당

예수수도회 한국관구 한국 진출 60주년 감사 미사



예수수도회 한국관구(관구장 장영선 수녀)는 6월 6일 (목) 한국 진출 60주년을 기념하며 대전 예수수도회 교육센터에서 감사 미사를 봉헌했다.

해미순교자국제성지 '디지털 역사체험관' 개관식



해미순교자국제성지(전담 한광석 신부)는 6월 11일(화) 성당 건물 옥상에 설치된 '디지털 역사체험관' 개관식을 했다.

이날 대전교구장 김종수 주교, 이완섭 서산시장, 정용욱 문화체육관광부 중무실장 등 많은 사제와 신자, 지역민이 함께했다.

대전북부지구 중고등부 연합미사



대전북부지구 중고등부 연합 미사가 6월 9일(주일) 노은동성당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마태 5,14)라는 주제 성구로 대전북부지구 중고등부 주일학교 학생과 교리교사, 사제와 수도자 등 총 247명이 참례한 가운데 있었다.

원신흥동본당 본당의 날 행사



원신흥동본당(주임 이진욱 신부)은 본당의 날 행사로 6월 1일 (토) 본당의 날 축하 음악회와 2일(주일) 미사를 드리고, 여러 프로그램을 함께했다.

신탄진본당 본당의 날 명랑운동회



신탄진본당(주임 조성구 신부)은 5월 19일(주일) 대덕실내 문화체육관에서 본당의 날을 맞아 명랑운동회를 개최했다.

대전교구 마리아사제운동(M.S.M) 체나콜로 1일 피정



총대리 한정현 주교는 6월 8일(토) 덕명동성당에서 대전교구 마리아사제운동(M.S.M) 체나콜로(회장 김서울 데레사, 담당 구본국 신부) '1일 피정' 파견 미사를 봉헌했다.

보령동대동본당, 천안쌍용동본당 견진성사



교구장 김종수 주교는 6월 9일(주일) 보령동대동성당(주임 장동준 신부)에서 보령동대동본당 교우 21명과 웅천본당 교우 7명을 대상으로 견진성사를 집전했다.

총대리 한정현 주교는 6월 9일(주일) 천안쌍용동성당(주임 권선민 신부)에서 본당 교우 55명을 대상으로 견진성사를 집전했다.

대전북부지구, 보령지구, 대전남부지구 사제 성화의 날



대전북부지구



보령지구



대전남부지구

6월 7일(금) 지극히 거룩한 예수 성심 대축일을 맞아 대전북부지구(지구장 변윤철 신부), 보령지구(지구장 이정업 신부), 대전남부지구(지구장 송우진 신부)는 '사제 성화의 날'에 각 지구별 행사를 했다.

대전북부지구는 노은동성당에서 사제들이 함께 모여 성체조배, 지구회합, 공동식사를 하며 '거룩함의 직무자가 되어야 하는 사제의 의무'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보령지구는 200여 명의 신자들과 함께 미사봉헌과 성시간을 갖고 사제와 신자 모두 함께 성화되어 주님께 나아가는 자녀가 되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대전남부지구는 11명의 사제들이 도마동성당에서 250여 명의 신자들과 함께 '사제 성화의 날' 미사를 봉헌했다.